



엑손케미칼 코리아

폴리머사업 기술 전달·정보메신저 역할 담당

종합 품질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1988년 한국현지 법인 설립

국내 산업이 성장을 시작하기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산업계를 이끌 어가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포장산업계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70년대를 기점으로 엑손케미칼을 비롯한 화학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했다.

1977년 4월 한국지점을 설립한 엑손케미칼은 오퍼세일 및 연락업무등을 수행하여 오다 1988년 11월 한국현지법인인 엑손케미칼 코리아를 설립했다.

현재 엑손은 사업부서별로 4개부서로 구분되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요부서는 폴리머

사업부, 윤활유 첨가제부, 가소제 및 용제사업부, 기초화학사업부가 있다.

4개의 사업부로 구분

폴리머사업부는 부틸과 EP업무, 접착제원료, 인 C5계 석유수지, 특수에틸렌 코폴리머수지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 10년 국내 타이어산업, 자동차산업 및 포장산업을 비롯한 플라스틱 가공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폴리머 사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파라민사업부는 윤활유첨가제 및 연료첨가제 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끊임없는 신제품개발과 기술지도로 국내 윤활유 및 연료의 품질고급화에 앞장 서고 있으며 첨가제의 원활한 공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수용제사업부는 1987년 스펙판매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고품질 알코올과 특수솔벤트를 국내에 다양 공급해오고 있다.

이 사업부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고객확보를 위한 전략인데 제품의 판매, 운송, 배



▲ 엑손케미칼 폴리머사업부 팀원. 안병후이사, 제니퍼김, 김미정, 정호영대리(좌측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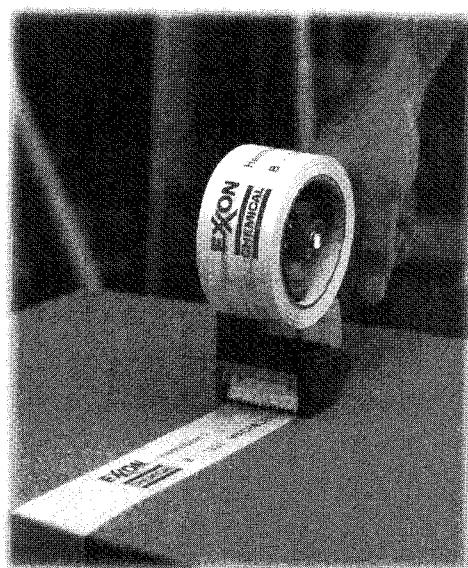
달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그외 기초화학 제품부도 파라자일렌이나 카본블랙 오일의 국내 공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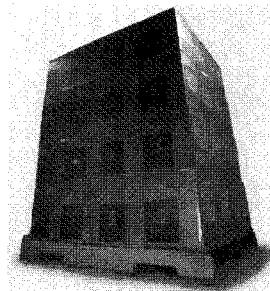
폴리머사업부 4명 팀워이팀

고기능성 에틸렌 코폴리머(EAA, EMA 메탈로센 PE 등)를 중심으로 점착제 원료인 C5 계 석유수지 등을 공급하며 포장재료 및 가공업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폴리머사업부는 현재 안병후 이사를 비롯해 정호영 대리, 제니퍼 김, 김미정씨 등 4명의 멤버가 고객 만족을 위하여 눈에띄는 팀워을 발휘하고 있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엑손그룹은 95년 현재 총 매출이 연1천2백억불 정도이고, 그중 케미칼부분만 1백십억불정도며 한국은 96



▲ 엑손의 포장용테이프 원료인 'HMPSA'로 만든 제품



▲ 엑손의 EXXON로 제품화한 스트레치 필름.

년 기준으로 2%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조금 줄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인 석유화학 경기의 하락과 국내 석유화학 산업기반 구축에 따른 범용

시장의 기회가 규모가 적은 특수시장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밝히는 안 이사는 국내 석유화학회사에서 5년간 일하다 엑손에서 현재까지 13년간 몸담고 있다.

다양한 제품 선보여

이미 국내 포장산업계에 친숙히 파고든 엑손은 다양한 포장관련 원료를 선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차세대 PE소재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Metallocene PE를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엑손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종류의 (범용메탈로센 LLDPE, 특수메탈로센 PE)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 제품은 범용 필름용도의 경우 기존대비 월등한 Impact Puncture Strength와 저온 Seal 특성으로 고속포장과 Down gauge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가절감은 물론 환경오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수메탈로센 PE의 경우 저온 Seal 특성 및 우수한 Hot Tack 성능으로 기존의

(표 2) 엑손의 생산품목

제품명	상표명	Application	Remarks
PE mPE (Metallocene catalyst) EAA	Escorene Exceed Exact Escor	일반/특수 Film 특수 Film Elastomer/Plastomer Extrusion coation Emulsion	LDPE/LLDPE/HDPE Density 0.915이상 Density 0.915이하 Ethylene Acrylic Acid copolmer
EMA	Optema	Extrusion coation/ lami/comp'g/sealants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Ionomer	Iotek	-Golf ball cover -Sealing layer	
EVA Petrochemical Resin	Escorene Ultra Escorez	HOT MELT/Film/cable 접착제	Ethlene Vinyl Acetate C ₅ /C ₉ /수첨수지/C ₅ , C ₉ 공중합 etc

Copolymer(EAA, Ionomer)들을 상당부분 대체함은 물론 저밀도에서 오는 Elastomeric 특성으로 기존의 합성고무 등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다국적회사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물건을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첨단원료를 공급함으로써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를 이전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 이사는 밝혔다.

또한 그 예가 고기술을 요구하는 기저귀에

사용되는 접착제로 외국에서 전량 수입되어 오던 것에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하여 현재 100% 대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이라는 장점 때문에 세계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어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안 이사는 외국회사에 대한 국내 일부 편견된 시선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안 이사는 힘주어 강조했다.

앞으로도 폴리머 사업부분에 비중을 두고 운영될 엑손코리아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종합품질관리(TQM)운동은 제품의 수요자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사내직원, 사회까지도 고객으로 보고 기업의 이미지관리와 사회봉사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엑손의 세계적인 기술, 생산능력, 마케팅 네트워크, 종합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에 대한 최대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엑손가족들의 다짐이 믿음직스럽게 다가왔다. [ko]



▲ 엑손의 EXACT로 제품화한 차단성포장재료

이선하 기자